

# 광주FC '슈퍼루키' 문민서 "공격 축구로 팀 연패 끝낼다"

### 오늘 제주 상대 9라운드 경기... "선제골 기쁨보다 팀 패배 아쉬워"

광주FC의 '루키'는 웃고 싶다. 광주는 매년 특급 신인을 배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시즌에도 문민서(MF)가 주목받고 있다. 문민서는 광주 U-12부터 U-15, U-18까지 모든 유스팀을 거쳐 프로 유니폼까지 입은 광주의 첫 선수다. 지난해 금호고를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팀의 준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에도 기여했던 그는 대학 진학 1년 만에 이정호 감독의 풀업을 받았다.

그리고 문민서는 3월 31일 대구와의 K리그 1 4라운드 홈경기에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0-0으로 맞선 전반 20분 이희군이 페널티 킥을 얻어냈고, 문민서가 키커로 상대 골키퍼를 마주했다. 긴장감 가득한 순간이었지만 문민서는 차분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장식했다.

이후 꾸준하게 경기에서 나서면서 경험을 쌓은 그는 지난 28일 안방에서 열린 수원FC와의 9라운드 경기에서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문민서는 전반 44분 두현석이 올려준 공을 받아 골대 왼쪽에서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며 개인 두 번째 골을 장식했다.

대구전에 이어 나온 문민서의 선제골. 하지만 승리의 주역은 되지 못했다. 광주는 문민서의 골이 나온 두 경기에서 모두 1-2 역전패를 당했다. 전반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한 뒤 후반 역전골을 내준 것도 같았다.

문민서는 "팀이 먼저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밖에 없다"고 자신의 골보다는 팀의 패배를 이야기했다.

문민서의 아쉬움에도 팬들은 '루키'의 대범한 플레이에 환호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딱수가 있는 선수"라며 보였던 기대감이 맞는 골 장면들이 나왔다. 데뷔골은 약속된 플레이였다. 이정호 감독은 대구와의 경기 전 페널티킥 키커로 문민서를 낙점해 왔다. 부담 많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어린 선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감독의 방안이었다.

이정호 감독은 혹시 모를 실패가 나왔을 경우 본인 책임 지겠다는 생각으로, 문민서에게 역할을 맡겼다.

문민서는 "골을 넣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내 템포대로 차고 싶어서 주위 소음이 요동하지 않고 내 자신한테만 집중했다. 차고 공만 봤는데 상대 골키퍼가 반대로 움직였다. '아 됐다' 생각이 들었다"고 데뷔골 순간을 이야기했다.

긴장될 수도 있는 프로에서의 첫 경기, 첫 페널티킥 상황이었지만 문민서는 차분하게 자신의 템포대로 슈팅을 날려 골을 만들었다.

자신의 두 번째 골이자 첫 월드컵 순간에도 문민서는 신인답지 않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문민서는 "감독님께서 경기 중에 우리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 열려있으면 침투를 생각해야 한다고 소리 쳐주셨다. 경기 초반에 침투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그걸 듣고 정신을 차리고 계속 공 체크하면서 플레이를 했다"며 "현석이 행이 공을 잡았는데 센터백이랑 사이드백이랑 공간이 넓어서 침투했다. 처음에는 바로 왼발로 슈팅할 생각이었는데 오른쪽에 수비수가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차는 것보다는 접근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접근하면 수비가 발을 뺄거나 태클을 할 것 같아서 오른발



광주FC의 문민서(가운데)가 지난 28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2호골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로 마무리했다. 골키퍼가 나오는데 오른쪽이 비어 있어서 밀어 넣으면 될 것 같았다"고 2호골을 이야기했다.

순식간에 전개된 공격 상황에서도 문민서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보고, 침착하게 슈팅을 하면서 골 세리머니를 했다. 그만큼 이정호 감독과 형들은 문민서의 선제골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다.

패배의 아쉬움에도 광주는 또 다른 미래의 활약에 웃고 있다.

문민서는 "프로 데뷔 준비하면서 '빨리 경기를 뛰겠다'가 아니라 '성장해서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일찍 기회가 왔다"며 "실수를 조금 더 줄여야 할 것 같다. 훈련할 때부터 더 집중해야 한다. 안 할 수 있는 실수가 몇 개 나왔는데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여러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면서 간결하게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 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인 능력으로 공격 포

인트를 올리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FC전 패배로 광주는 6연패에 빠졌고, 최하위까지 내려왔다. 비강 끝에 선 광주는 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9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자신감을 더한 문민서가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프로 첫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신태용호' 인니, 우즈베크에 덜미... 3위 결정전서 파리행 도전

### 준결승 우즈베크에 0-2 패 이라크와직행 티켓 대결

'신태용호' 인도네시아가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우즈베크스탄에 겨 파리행 티켓 확보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30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4 아시아 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우즈베크스탄에 0-2로 패했다.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 대회에

서 1~3위엔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주며,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파리행 여부를 가린다. 인도네시아는 이날 패배로 3위 결정전으로 밀려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0-2로 패한 이라크와 아시아의 3번째 파리행 직행 티켓을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결승에 오른 우즈베크스탄은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우즈베크스탄이 U-23 아시안컵 결승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중국 대회 우승, 2022년 우즈베크 대회

준우승 등 두 차례나 결승에 올랐다. 30일 알라이안에서 치러진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는 일본이 이라크를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해 파리행 직행 티켓을 품었다. 일본은 결승전에서 우즈베크스탄을 상대로 2016년 우승 이후 8년 만의 대회 정상 탈환에도 도전한다. 일본은 2022년 대회 준결승에서 우즈베크스탄에 0-2로 패해 우승을 놓쳤던 터라 2년 만의 '리턴 매치'를 통해 설욕의 기회를 얻었다. 2022년 대회 준우승팀인 우즈베크스탄 역시 2018년 대회 챔피언에 오른 이후 6년 만의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김지현, H리그 베스트 7 선정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핸드볼 H리그 시즌 베스트 7에 선정됐다. 시즌 21경기에서 총 143점을 기록하며 리그 다득점 3위를 기록한 레프트백 김지현은 지난 29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시상식에서 센터백 강경민·라이트백 유소정·피봇 강은혜(이상 SK) 레프트윙 윤예진(서울시청), 골키퍼 박세영·라이트윙 김선화(이상 삼척시청)와 함께 베스트 7에 올랐다. 베스트 7은 정규리그 50%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기자단 및 감독, 그리고 연맹이 선정한 투표단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 시즌 신인왕에는 임서영(인천시청)이 이름을 올렸다. 득점상은 우빛나(서울시청), 어시스트상은 유소정(SK), 골키퍼상은 박세영(삼척시청)이 받았다. 최다 활동량상은 지은혜(대구시청), 베스트골은 이연경·베스트 세이브는 오사라(이상 경남개발공사)가 수상했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이 지난 20일 부산시설공단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날리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김지현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나 혼자만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같이 열심히 뛰고 서로 도와줘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이번 시즌은 새 멤버 영입 등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그만큼 힘들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배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며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달랠다. 광주도시공사는 올 시즌 6승 1무 14패(승점 13)로 8팀 중 7위에 머물렀다. 한편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는 SK슈가글라이더즈의 시즌 통합우승으로 마무리됐다. SK는 지난 29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챔피언결정전(3선 2승제)에서 1: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통합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절대 1강' 신진서 없는 바둑리그 PS... '우승 청부사'는 누구?

### 8일부터 4팀 격돌... 각 팀 감독 "최대 변수는 용병"

바둑리그 포스트시즌에 출전하는 각 팀 감독은 우승 가도에 최대 변수로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여부를 꼽았다. 지난 30일 성동구 마장로 사옥에서 2023-2024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시즌(PS) 미디어데이에 참가한 정규리그 1~4위팀 원익과 울산 고려아연, 한국물가정보, 수려한 합천의 감독들은 저마다 우승을 향한 각오를 밝히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KB바둑리그는 올 시즌 출범 21년 만에 처음 외국인 선수제를 도입해 큰 화제를 모았다. 구쥘하오(원익), 라오리안허(울산 고려아연), 당이페이(한국물가정보), 양카이원(바둑메카의정부), 쉬하오홍(마한의 심장 영암) 등 8개 팀 중 5개

팀이 중국과 대만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반면 올 포스트시즌의 최대 특징은 부동의 한국랭킹 1위 신진서(Kixx)의 부재다. 2012년 입단한 신진서는 10년 연속 소속팀을 포스트시즌으로 견인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0승 2패를 기록한 신진서는 포스트시즌에서 8전 전승을 거두며 난가리그 3위로 포스트시즌에 턱걸이한 Kixx를 정상으로 이끌었다. 신진서는 이번 정규리그에서도 12승 1패로 다승 1위에 올랐으나 Kixx는 7위에 그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절대 1강' 신진서의 부재 속에 포스트시즌에 오른 4개 팀 감독은 저마다 우승을 자신했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원익의 이희성 감독은 "포스트시즌은 용병 구쥘하오 9단을 기용해 풀 전력으로 입할 예정"이라며 "챔피언결정전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완벽한 승리로 2국에서 끝내겠다"고 우승 의지를 불태웠다. 울산 고려아연의 박승화 감독은 "라오리안허가 정규리그와 마찬가지로 큰 활약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한국물가정보의 박정상 감독도 "주장인 강동윤과 함께 세계적인 선수인 당이페이가 전력으로 포스트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트시즌 진출 팀 중 유일하게 용병이 없는 수려한합천의 고근태 감독은 "우승을 위해서 다들 넘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한다. 합천에서의 응원 열기가 뜨거운데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